

# 간호학생의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우미영<sup>1</sup>, 배현지<sup>2</sup>, 홍성정<sup>2\*</sup>  
<sup>1</sup>호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2</sup>안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The Convergenc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on Communication Skill of Nursing Students

Mi-Young Woo<sup>1</sup>, Hyun-Jii Bae<sup>2</sup>, Sung-Jung Hong<sup>2\*</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Ando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K시에 재학 중인 187명의 간호학과 학생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9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는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7점 만점에서 평균 5.09점이었으며, 대인관계 유능성 점수는 5점 만점에 3.53점,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서 3.56점이었다.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감성지능( $\beta=.354, p < .001$ ), 대인관계 유능성( $\beta=.475, p < .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감성지능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감성지능과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감성지능, 의사소통, 간호학생, 대인관계,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students. Participants were 187 nursing students in K city,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20 to December 20, 2019,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s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c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IBM SPSS 25.0. The results of study showed that averag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and communication skill was 5.09 out of 7, 3.53, 3.56 out of 5 respectivel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were the main variables affecting their communication skills. We recommend that competence education programs for develop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should apply to nursing education courses.

**Key Words** :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Nursing stud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Sung Jung Hong(wjwsg@hanmail.net)

Received October 19, 2020

Accepted December 20, 2020

Revised December 1, 2020

Published December 28, 2020

## 1. 서론

간호교육은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습교육은 교내실습과 임상실습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다. 임상실습 교육은 간호사로서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지식, 임상수행능력, 태도 등을 실제 병원 현장을 통해 배우게 되는 교육과정으로 간호학생의 학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다[1]. 이러한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 간호학생은 체계적인 임상실무 적용능력을 습득하고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2]. 그러나 상당수의 간호학생은 임상실습 과정에서 이론과 실습의 차이, 실습학생으로서의 모호한 역할, 미숙함과 실수, 불안 등으로 신체, 정신적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3]. 또한 익숙한 강의실을 벗어나 학교 밖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낯선 환자와 의료진을 대면함으로써[2] 학생들에게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의사소통능력은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적절한 상호작용을 위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4].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임상실습에서 환자 및 보호자, 동료와 간호사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치료적 교류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며, 문제해결능력과 실습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3]. 또한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으로 임상실습 중에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실습팀원 간의 팀 과제 수행 시 기여도에 대한 불균형, 의견충돌, 역할 갈등이 있으며, 자존감 저하 또는 상대방의 감정 손상 등으로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협력을 통한 실습이 어려워지기도 한다[5].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성과 다른 사람의 감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으로[6], 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감성지능 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한편 감성지능은 태도로 표현되는 의료인의 대인관계 기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어 간호학생들의 감성지능은 대인관계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대인관계 능력은 환자와의 관계형성 시 정서적 공감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은 일상적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임상실습과정에서 의료인, 환자와 보호자들과의 상호작용 시 정서적 교류를 통하여 타인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9,10].

대인관계능력은 의사소통능력과도 유의한 높은 정적

인 상관관계가 있는데[10], 정혜선과 이기령의 연구[11]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대인관계능력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며, 대인관계 능력이 간호실무 현장에서 간호업무성과와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12]. 이러한 간호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의사소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들과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질 높은 간호를 실천하며, 환자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13].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대인관계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인관계능력은 의사소통능력을 긍정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상관관계 및 관련 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각각 확인하는 단편적인 연구로 세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감성지능,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의사소통능력을 높일 수 있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K시에 소재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이다. 연구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측변수 3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 수를 산출하여, 목표 대상자 수 119명으로 나타났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190개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87명이 분석되었다.

### 2.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12문항, 감성지능 16문항, 대인관계 유능성 31문항, 의사소통 49문항 등 총 108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 2.3.1 감성지능

Wong와 Law[14]가 개발한 감성지능 측정도구를 Jeong[13]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6 문항, 7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1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 2.3.2 대인관계 유능성

Buhrmester 등 [15]이 개발한 대인관계 유능성 질문지(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Han과 Lee [16]가 한국 대학생에 맞게 변안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1문항, 5점 척도로 '나는 이것을 잘 못한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다룰 수가 없고 매우 불편하다'의 1점에서 '나는 이것을 매우 잘 한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매우 잘 다루고 매우 편안하다'의 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와 Han[1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8$ 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 2.3.3 의사소통 능력

Rubin[17]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ICC)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능력 구성개념을 Hur[18]가 수정·보완한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GICC)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49문항,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ur[18]가 수정·보완 시 Cronbach's  $\alpha = .7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63$ 이었다.

## 2.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의 약 30일간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시행하기에 앞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1040191-201911-HR-013-01)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자료 수집은 연구 보조자가 2주간의 병원 임상실습을 마친 간호학생에게 학교 강의실을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였고, 연

구대상자에게 설문에 대한 응답을 하기 전에 연구 설명, 연구동의서 내용을 숙지하도록 설명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195부 중 19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무응답과 불성실 응답을 한 3부를 제외 한 187부를 분석 자료로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 2.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감성 지능, 의사소통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진단 후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연령은 23.03세이었으며, 23세 미만이 43.9%였고, 23-24세가 4.01%, 25세 이상이 16.0%였다. 여성이 82.4%였고, 종교는 무교 69.0%, 기독교 16.0%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공만족도는 보통 만족이 48.7%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학년은 3학년이 58.8%를 차지하였고, 건강상태는 건강한 학생이 63.1%를 나타내었다.

### 3.2 감성지능, 대인관계, 의사소통 상관관계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7점 만점에서 평균 5.09(.80)점이었으며, 대인관계 유능성 점수는 5점 만점에 3.53(.50)점이었다. 의사소통 능력은 5점 만점에서 3.56(.34)점이었다(Table 2).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의사소통 능력은 감성지능( $r=.631$ ,  $p<.01$ )과 대인관계 유능성( $r=.695$ ,  $p<.01$ )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1.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187)

Variables	Categories	n(%)
Age (Year)	22	82 (43.9)
	23-24	75 (40.1)
	25 above	30 (16.0)
Gender	Male	33 (17.6)
	Female	154 (82.4)
Religion	None	129 (69.0)
	Yes	58 (31.0)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86 (46.0)
	Moderate	91 (48.7)
	Unsatisfaction	10 (5.3)
Grade	3rd	110 (58.8)
	4th	77 (41.2)
Health Status	Good	118 (63.1)
	moderate	63 (33.7)
	Bad	6 (3.2)

**Table 2.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87)

Variables (range)	M(SD)	A	B	C
A (1-7)	5.09 (.80)	1	.540**	.631**
B (1-5)	3.56 (.34)	.540**	1	.695**
C (1-5)	3.53 (.50)	.631**	.695**	1

A: Emotional Intelligence  
 B: Interpersonal competence  
 C: Communication competence  
 \*p< .05, \*\*p< .01

**Table 3. Differences of Variables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87)

Variables	Categories	A		B		C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	22	5.05(.82)	1.52 (.221)	3.58(.54)	.93 (.397)	3.59(.34)	.45 (.639)
	23-24	5.03(.73)		3.47(.43)		3.54(.32)	
	25 above	5.32(.92)		3.55(.56)		3.55(.37)	
Gender	Male	5.21(.95)	.95 (.343)	3.56(.55)	.39 (.695)	3.56(.39)	-.10 (.916)
	Female	5.06(.77)		3.52(.49)		3.56(.33)	
Religion	None	5.11(.79)	.54(.592)	3.59(.49)	2.63 (.009)**	3.59(.329)	1.32(.189)
	Yes	5.04(.832)		3.52(.35)		3.52(.352)	
Satisfaction in major	Satisfaction	5.29(.74)	1.48 (.040)**	3.71(.48)	11.64 (.000)***	3.68(.32)	11.51 (.000)***
	Moderate	4.95(.80)		3.37(.44)		3.47(.31)	
	Unsatisfaction	4.56(.92)		3.41(.68)		3.39(.35)	
Grade	3rd	5.04(.81)	-.87 (.386)	3.55(.52)	.51 (.611)	3.57(.34)	.54 (.591)
	4th	5.15(.52)		3.51(.48)		3.55(.33)	
Health status	Good	5.22(.77)	4.88 (.009)**	3.57(.51)	1.80 (.168)	3.60(.34)	1.92 (.149)
	moderate	4.88(.85)		3.48(.49)		3.52(.34)	
	Bad	4.60(.24)		3.24(.43)		3.40(.25)	

A: Emotional Intelligence, B: Interpersonal competence, C: Communication competence.  
 \*\*p< .01, \*\*\*p< .001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감성지능은 전공만족도(F=1.48, p<.05)와 건강상태(F=4.88, p<.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인관계 유능성은 전공만족도(F=11.64,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은 종교(F=3.89, p<.05), 전공만족도(F=11.51, p<.001)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3.4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만족=0, 보통, 불만족=더미처리)를 가변수 처리하고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우선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정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80이상인 설명변수가 없어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임을 확인되었다. 오차의 자기상관 검증에서는 Dubin-Watson통계량이 1.704으로 2에 가까워 자기 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공차한계(tolerance)가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Communication competence

Categories	B	SE	$\beta$	t(p)
(Constant)	1.712	.139		12.29 (.000)
Major satisfaction	-.058	.034	-.086	-1.69 (.092)
Emotional intelligence	.149	.024	.354	6.21 (.000)
Interpersonal competence	.319	.039	.475	8.09 (.000)
R <sup>2</sup>	.571			
Adjusted. R <sup>2</sup>	.575			
F(p)	84.76 (.000)			

.664~.883로 0.1이상 범위 내에 있으며 분산팽창지수 (Variance inflation)가 1.132~1.507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따라서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의 예측회귀모형은 Table 4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84.76$ ,  $p=.000$ ).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감성지능( $\beta=.354$ ,  $p=.000$ ), 대인관계 유능성( $\beta=.475$ ,  $p=.000$ )이 예측변수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능력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57.5%로 나타났다.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결과 간호학생의 감성지능은 7점 만점에 평균 5.09(80)점이었으며, Kim과 Oh [19]의 연구와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Lee와 Chael[20]와 Ko[21]의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에 따라 감성지능에 유의한 차이나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20,21]에 따르면, 감성지능이 높은 학생은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본 연구에의 연구대상은 임상실습을 수행한 3, 4학년이 대상이었으며, 감성지능이 높은 학생이라도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라 전공만족도가 달라서 나타난 결과로 임상실습 유무에 따른 감성지능과 전공만족도 등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대인관계 유능성의 평균 점수는 3.56점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대인관계 유능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22]의 연구에서는 3.34점,

Kim 등[23]의 연구에서도 3.33점으로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비교과 활동 등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3.53점이었으며, Kang 등[24]의 연구에서는 3.79점, Kim [25]의 연구에서는 3.80점으로 연구마다 결과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구의 연구대상자가 달라서 나타난 차이로 해석된다. Kang 등[24]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마친 4학년 학생만 대상으로 하였으며, Kim [25]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경험을 한 간호학과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등 연구마다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경험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경험[25]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Kim [25]의 연구에서 보면 1학년, 4학년 학생은 의사소통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3학년은 의사소통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3학년이 임상실습을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임상실습을 처음 나가는 학생을 위해 간호학적 지식과 술기 이외에도 의사소통에 대한 훈련 및 준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의사소통 점수도 높게 나타났으며, 선행 연구[26,27]에서는 학년별, 의사소통 교과목 수강 유무 등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감성지능과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28]에서 감성지능은 의사소통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학생은 예비간호사로서 몸과 마음이 아픈 대상자

와 지속적인 접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또는 간호를 거부하는 대상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적절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긍정적인 감정 성향의 감성지능이 요구된다[29]. 따라서 감성지능을 향상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간호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의사소통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간호, 보건 계열 대학생을 연구한 Na 등 [30]의 연구와 Park [31]등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한 학생은 임상현장에서 적극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30]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 만족도와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 변수로 이러한 요인들이 의사소통 능력의 57.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감성지능과 대인관계 유능성은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한 것은 의의가 있다.

간호사는 질병에 노출되어 부정적인 감정을 노출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의미 있는 정보나 메시지 교환 등에서 신뢰를 주어야 하므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통제가 요구되고 있으며[31,32], 이러한 감성지능은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감성지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 타 의료직종의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과 공감능력[33]을 갖추는 대인관계 유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간호교육과정과 간호교육기관에서 감성인성강화교육 및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감성

지능과 대인관계 유능성, 감성지능과 의사소통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감성지능과 대인관계 유능성은 의사소통능력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사소통능력 효과를 검증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일 지역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 REFERENCES

- [1] S. S. Hong & M. J. Park. (2014).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helplessness on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2), 369-377. DOI:10.5392/JKCA.2014.14.12.369.
- [2] O. S. Lee & M. O. Gu.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2749-2759. DOI:10.5762/KAIS.2013.14.6.2749
- [3] I. S. Park. (2018).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empathy.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1), 1-11.
- [4] M. J. Papa, T. D. Daniels & B. K. Spiker. (2008).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perspectives and trends*. Los Angeles, London: SAGE. DOI:10.4135/9781483329239
- [5] S. V. Bowles & J. J. Picano. (2006). Dimensions of coaching related to productivity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Practice and Research*, 58(4), 232-239. DOI:10.1037/1065-9293.58.4.232
- [6] M. O. Kim. (2016). Study on self-efficacy,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6), 609-617. DOI:10.5762/KAIS.2016.17.6.609
- [7] H. J. Yeo. (2017). Predictors of empath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 177-184. DOI:10.1016/j.nedt.2010.01.018
- [8] H. S. Jeong & G. Y. Lee. (2012).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5), 2635-2647.
- [9] S. K. Hong. (2017). Influence of Humanistic

- Knowledge and Resilience on Communication skills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care Communication*, 12(2), 189-200.
- [10] S. Y. Yang, (2016).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clinical practice stress of th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9), 286-296. DOI: 10.5392/JKCA.2016.16.09.286
- [11] H. S. Jeong & K. L. Lee. (2015). Empath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9), 6044-6052, DOI:10.5762/KAIS.2015.16.9.6044
- [12] M. K. Cho, C. G. Kim & H. J. Mo. (2015).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 and Job Stress on Nursing Performance of Male Nurse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2(3), 195-204. DOI:10.5953/JMJH.2015.22.3.195
- [13] M. S. Jeong. (2014). Relations on self-esteem,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reinforc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332-340. DOI: 10.5977/jkasne.2014.20.2.332
- [14] C. Wong & K. S. Law. (2002). The effect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3), 243-274. DOI: 10.1016/S1048-9843(02)00099-1
- [15]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 H. T. Reis.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DOI: 10.1037/0022-3514.55.6.991
- [16] N. R. Han, & D. G. Lee. (2010).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n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1), 137-156.
- [17] R. B. Rubin, P. Palmgreen & H. E. Sypher. (1994). *Communication research measures: a source book*. New York: Guilford Press.
- [18] K. H. Hur. (2003). Constructions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Ad Information Studies*, 47(6), 380-408.
- [19] Y. S. Kim, & E. J. Oh. (2016).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7), 103-111. DOI: 10.5762/KAIS.2016.17.7.103
- [20] K. O. Lee & H. J. Chae. (2016).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llege adjus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0), 355-365. DOI:10.14400/JDC.2016.14.10.355
- [21] M. S. Ko. (2015).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0), 280-291.
- [22] H K. Cho. (2018). The influences on th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due to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2), 475-483. DOI:10.15207/JKCS.2018.9.12.475
- [23] S. N. Kim, Y. M. Kim & S. Y. Lee. (2018). The Convergence study on the Ego stat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61-72
- [24] H. S. Kang, Y. Y. Kim, & H. S. Lee. (2018). Predictive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3), 389-398. DOI:10.5762/KAIS.2018.19.3.389
- [25] M. J. Kim. (2019). A Study on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esteem and influencing factors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2), 603-617. DOI:10.22143/HSS21.10.2.43
- [26] G. S. Jeong, K. A. Kim, Ji A Seong. (2013). The effect of learning styl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ommunication skill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9(3), 413-422. DOI: 10.5977/jkasne.2013.19.3.413
- [27] M. H. Jang, J. A. Lee. (2017). The Influences of critical thinking ability communication skills, leadership, and professionalism on clinical practice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3(2), 124-133. DOI:10.14370/jewnr.2017.23.2.124
- [28] E. J. Choi & Y. L. Son. (2017).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ego-resilience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Clinical Health Science*, 5(3), 915-924. DOI: 10.22678/JIC.2018.16.3.023
- [29] J. H. Park & S. K. Chung. (2016).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resilience on nursing performance in university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0), 236-244. DOI: 10.5762/KAIS.2016.17.10.236
- [30] G. J. Na, E. H. Na. (2019). The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on the degree of campus life satisfaction: Major selection in

department nursing and health science colla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9), 205-221.

- [31] J. W. Park & M. S. Choi. (2009). A study on self consciousn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3), 351-360.
- [32] J. Y Ha, S. Y. Jeon. (2016). The effects of humanistic knowledge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ommunication skills of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3), 264-273.
- [33] J. Por, L. Barriball, J. Fitzpatrick & J. Roberts. (2011). Emotional intelligence: it's relationship to stress, coping, well-being and professional performance in nursing students. *Nursing Education Today*, 31(8), 855-560.

우 미 영(Mi-Young Woo)

[정회원]



- 2016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호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소아 청소년, 정신간호, 치매간호, 간호교육
- E-Mail : wmy@hanmail.net

배 현 지(Hyun-Ji Bae)

[정회원]



- 2016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안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보건의료 정책, 보건의료 경제, 간호교육
- E-Mail : hyunji@anu.ac.kr

홍 성 정(Sung-Jung Hong)

[정회원]



- 2011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18년 4월 ~ 현재 : 안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여성간호, 간호교육, 환자안전, 스마트 헬스
- E-Mail : wjwsg@hanmail.net